

## 말씀 절대 (열왕기상 13:24-32)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당할 때는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전에 당했던 문제처럼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얼마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봤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만 확실히 잡아도 완전히 해결이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것이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갈등에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 그 만큼 영적으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언약으로 승리하고 그 시대의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만일 그 때 요셉이 없었다면 어쩔 뻔 했는가? 애굽 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요셉이 가진 답을 몰랐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절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항상 심각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사실은 이것 말고는 이 땅에서 의미있는 일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바란다.

### 1. 말씀 절대

오늘 이야기는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된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성전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제사드리러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히 유다쪽으로 마음이 쏠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낸 너희 신이라고 말했다. 12장 27절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겁이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 낱자도 정했다. 자기 맘대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고 하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 낸 신이라고 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 사람을 베델로 보냈다. 그 때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큰 제단이 있었는데, 베델은 이스라엘의 유서깊은 지역이었고 마침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유다의 왕조인데, 그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때 말한 것이 요시아 왕때 다 이루어졌다. 요시아 왕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기 말하는 제사장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냥 세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단 위에 사람의 뼈를 제사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13장 3절에 단이 갈라지고 그 위의

재가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왜냐하면 불법 제단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유다에서 온 사람이 말하니 여로보암이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라고 여로보암이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굳어버렸다. 그러자 아무리 여로보암이라도 난리가 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성하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비를 구하니 손이 다시 회복되었다. 왕이 고마워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예물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집 절반을 줘도 안간다. 나는 가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을거라고 하였다. 그 이유를 9절에 기록해놓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길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본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길 중간에 만났다.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자고 했다. 떡도 먹고 마시자고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피곤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늙은 선지자나도 그대처럼 선지자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가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끝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앞에 먹으려고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돌변한 것이다. 21절에 갑자기 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22절에 너가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너가 먹고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체가 묘실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물어죽이게 되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듣고 그 현장에 갔더니 그것이 28절이다. 그가 가서 본즉 시체가 길에 버린바가 되었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죽이지도 않은 것이다. 그걸 보고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낸다. 30절에 보면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기가 죽으면 갈 묘실에 그 시체를 두고 슬퍼한 것이다. 그리고 31절에는 아들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기도 장사해달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이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뭐 어쩔란 말이나는 생각이 들었다.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말했다는데, 그리고 모습도 선지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니까, 거기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궁금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서 아

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았다. 말씀을 절대로 지키라는 말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다.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로보암은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말하기를 제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 누가 제사장이 될것이고, 어디에 살며, 장소도 이야기하고, 절기, 날짜 다 정해놓았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절기도 자기가 맘대로 정했다. 오늘 본문 다음 33절에 보면 제사장은 원하는 사람을 다 제사장 시켰다. 날짜도, 장소도 마음대로, 예루살렘 말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그것도 금송아지이다. 광야 올 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 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저주이다. 그래서 다음장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저주에 대해서 쪽 적어놓았다. 그 중에 14:10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들, 노예나 가족이나 다 끊어버린다고하는데 어느정도냐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갈게 쓸어버린다고 하였다. 이스라엘같은 나라에서는 남자 쓸어버리면 그 집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 귀중한 종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그 시대에 전달한 것이다. 오히려 아무런 죄도 없는 선지자를 죽여서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다. 이 상황에서 이 늙은 선지자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넘어설 만큼 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다. 비록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을 해서 속여도 속지 말아라. 너는 니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갈급한데 북쪽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무도 못 바꾸고 나도 안 바꾼다. 이것을 명심하라. 내 말을 듣지 왜 남의 소리를 들을거냐. 이 길 아니면 살길이 없는데 어디서 살것이나? 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다 죽는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유있게 다 죽을 것이다.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해도 따라갈 필요 없다. 그 말씀 안 따라가고 유다로 바로 돌아갔다 해도 괜찮다. 아마 하나님은 칭찬하셨을 것이다. 왜냐면 받은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다. 자기는 책임 없다.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는 안타깝게 죽고 말았다. 가슴아픈 죽음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다. 육신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는 시대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이다. 스데반 같은 죽음이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죽음이었다. 거기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열두사도는 전부 다 순교 당했다. 사도바울도 목 잘려 죽었다. 우리는 죽는 모습을 보고 무슨 저주니 어쩌니 하는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시대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무슨 방법으로 안된다.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다. 아무 죄 없이 이유 없이 말씀 안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러냐? 의문을 가질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었다. 이 선지자도 아는 것이다. 왜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슬피 운 것이다. 그리 슬피 울면서 내 형제여, 라고 하였다. 오호라 내 형제여. 그리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유언하였다. 사자도 그를 죽이기는 했어도 시체를 먹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자도 쓰임을 받은 것이다. 죽이는 것이지 먹는게 아니다. 오히려 시체를 지켰다. 나귀도 있었는데, 좋은 먹이감을 먹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말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물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을 깊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 억울한 만큼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상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통하는 말씀이다. 오히려 더 통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많지 않다. 첫째는 말씀을 잘 모른다. 그냥 믿음 있고 예배드리지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한다.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말씀의 핵심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른다. 그냥 응답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 응답은 그냥 온다는 것이 마 6:33이다. 우리는 전부 여기서 나와야 한다. 디모데후서 4:1-2절 잘 아는 말씀이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했다. 그냥 소리를 지르게 아니다. 하나님 앞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운동이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주간에 내게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이다. 이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다.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작품 인생이 나올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